

# 강천산, 8월 1일 야간개장

## 순창군, 야간 명소화 사업 관련 시연회

순창군이 강천산 야간개장을 오는 8월 1일로 예정한 가운데 최근 두 번째 '강천산 단월야행' 시연회를 갖고 정식개장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블로그 기자단, 문화관광해설사, 군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달 5일에 이어 두 번째 시연행사를 가졌다. 강천산 단월야행은 조선 전기 고전소설인 '설공찬전'을 모티브로 각색해 소설 속 주인공인 공찬, 공심 남매가 적룡을 물리치고 달빛 여왕을 구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빛과 영상으로 담아냈다. 강천산 입구부터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의 산책로에 주요지점마다 다양한 컨셉으로 담아냈다. 강천산 입구에 자연을 형상화한 트리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곳곳에 AR포토존을 조성했다. 이번 콘텐츠는 구름계곡, 신비의 강, 빛의 정원, 달빛 궁궐 등의 메인 공간에 미디어 쇼와 화려한 조명으로 연출했다. 고전소설인 '설공찬전'을 모티브로

과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도깨비와 용 등 친숙한 캐릭터로 미디어 콘텐츠를 구축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빛과 만남으로 생겨나는 강천산의 자연경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다"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이 곳곳에 눈에 띄어 가족 방문객들이 많이 찾을 것 같다"며 강천산의 달라진 모습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시연회를 준비한 군 관계자는 강천산이 주인공이 되는 콘텐츠와 조명으로 이색적인 야간산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군은 강천산이 가을철 단풍명산으로 가을이면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가득 할 정도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산행이 중간에만 한정되다 보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에 야간산행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해 관광사업 기반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강천산 야간 개장'을 기획했다. 군은 야간개장 시 계절별 자연여건을 고려하여, 봄·여름·가을에만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시연회를 통해 나온 문제점들은 본격 운영되는 오는 8월전까지는 보완을 거쳐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강천산 야간개장을 오는 8월 1일로 예정한 가운데 최근 두 번째 '강천산 단월야행' 시연회를 가졌다.

# 맛과 멋이 있는 '임실 맛 집' 22곳 선정

## 지정증과 표지판·위생용품 등 지원, 분기별 위생 컨설팅 진행

임실군은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조성과 지역 외식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맛과 멋이 있는 임실 맛 집 22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맛 집 선정은 영업주가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하여 5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52개소에 대해서 지역 외식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2차 현지심사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시 특색있고 율동한 맛, 위생과 친절 등 5개 항목으로 총점 85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업소를 선정했다. 메뉴로는 돈까스, 백반, 한우, 다슬기탕, 소머리곰탕, 순대국밥, 매운탕 등 다양한 메뉴를 선정했다. 맛 집에는 산들미향(돈까스, 임실

읍), 보름달(백반, 임실읍), 여우누리 한우앤치즈(한우, 임실읍), 참예우 한우프라이자(한우, 임실읍), 갈마가든(오리구이, 임실읍), 막창구이구이(막창, 임실읍), 광명갈비(숯불갈비, 임실읍), 미식가(소바, 임실읍), 깨미집(순대국밥, 임실읍), 기센장어(장어구이, 임실읍), 상운안 전주식당(매운탕, 운암면), 옥정호산장(매운탕, 운암면), 일송정가든(매운탕, 운암면), 강남쌈밥(참깨장물술밥, 운암면), 시골밥상(능이백숙, 운암면), 백송가든(염소탕, 오수면), 고살식당(오리주물럭, 오수면), 장안식당(소머리곰탕, 오수면), 초원장(매운탕, 관촌면), 성심회관(다슬기탕, 강진면), 가나안식당(다슬기탕, 강진면), 강산에(땅두릅매운탕, 덕치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맛 집은 지속적으로 임실 맛집으로 운영되며, 분기별로 위생 컨설팅을 진행한다. 군은 임실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며 맛 지도와 임실군 홈페이지, 임실군 SNS 등으로 전국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맛 집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임실 N치즈축제에 신청자에 한해 향토음식관 부스 참가자격이 부여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맛과 멋이 있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임실 맛 집을 지정하여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은 지난 4일 제6회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남원 노봉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 전북 대표 출전권 획득·시상금 500만원 받아

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은 지난 4일 제6회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오는 8월 28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전라북도 대표 출전권 획득과 함께 시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의 자율·창의력·협동심을 고취하고, 마을의 소득·문화·경관·환경 등 개선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현장 평가를 통한 도내 12개 마을이 도청 대강당에서 체험소득, 경관환경, 문화복지, 아름다운농촌 등 4개 분야에서 출전했으며, 노봉마을은 혼불아리랑을 주제로 문화복지분야에서 경쟁을 펼쳤다. 노봉마을은 그동안 문화복지, 소득체험, 농촌경관 등 여러 가지

공통체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014년 복사꽃사업단을 구성해 마을진입로와 공한지에 개복송아를 심는 경관조성과 2016년에는 마을안길에 맥문동 등 초화류를 심어 만들기 콘테스트 전라북도 대표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또한 향토산업마을 1억원을 지원받아 농특산물 야외판매장 설치(2016년) 및 슬로푸드마을을 조성해 웃술, 개복송아액기스 등을 생산(2017년)해 마을공동체 소득을 높였다. 2014년부터는 마을의 자원인 소설 혼불의 주인공인 효원아씨가 매안으로 가마타고 오는 신행길을 재현하는 '효원의 시집가는 날' 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축제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등 4년 연속 주민주도형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서울 방배동서 귀농귀촌 교육·상담 진행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승)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방배동에 있는 전북도 수도권 홍보관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순창군이 귀농귀촌의 최적지임을 널리 알렸다. 군은 이틀간 오전에는 귀농 귀촌 상담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192명에게 귀농정책과 귀농사례 발표, 귀농귀촌 갈등관리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 수요자에게는 수료증을 배부해 보람을 느끼게 해줬다. 특히 군은 이번 홍보활동에서 전국

에서 가장 많은 52개소 임시 귀농인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청년실업농장 운영으로 청년들이 영농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권일수 귀농귀촌계장은 "수도권 홍보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대전 컨벤션센터에서도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곳에서도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순창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저소득층 가정 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1개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과 개별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패키지별 보충식품(쌀, 감자, 당근, 미역, 분유, 우유 등)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65가구 194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선정기준은 남원시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건강보험료 4인기준 직장가입자 120,060원, 지역 가입자 113,534원) 가정의 임신부 및 수유부와 영아, 만66개월 이하 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저신장)보유자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자격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영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사업 대상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문의 및 접수는 남원시보건소 영양플러스 (063-620-7980~1)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농어촌공, 순창지사 순창군의회 업무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조남출)는 지난 5일 순창군의회를 방문해, 신장이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순창지사 임직원 소개와 2019년 주요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과, 2020년 예산지원 요청을 위한 업무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농공 순창지사가 순창군과 위(수)탁으로 추진중인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과 지방비 수탁사업 등 순창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조남출 지사장은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양질의 농업용수공급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예방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창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최선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순창군 의회 신장이 의장 및 의원들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농촌발전을 위해 요구사항이 정책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농공 순창지사와 군의회가 서로 협치하여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